

재해개요

2019.02.27일(수) 충남 금산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옥상에서 갯폼의 수평부재 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에 의해 1층에 놓여 있던 부직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 하던 작업자 중 화상을 입어 1명 사망, 2명 부상

재해상황도



재해발생원인

○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 화기(용단)작업 실시

- 용단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, 가연성물질에 착화방지 조치없이 용단작업 중 불티가 부직포 더미에 떨어져 화재 발생

○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응체계 미흡

- 작업자들이 화염과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된 이후에 대피를 시작하여,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호 개구부 및 외부비계를 통해 무리하게 대피하던 중 재해 발생

재발방지대책

○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 화기(용단)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철저

- 용접·용단작업 등 화기작업시 비산되는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불티비산방지판 또는 덮개, 가연성 물질에 방화포 등 설치
- 화기작업 전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조사하고,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배치 하는 등 착화방지

○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응체계 확립

- 화재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노동자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
-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상시 감시, 경보설비 운영, 대피경로 지정 및 유도